

당의 기초축성의 역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불멸의 업적

오 성 철

당의 기초축성은 수령에 의하여 창건되고 공고발전되어온 당을 수령의 후계자의 령도밑에 영원히 수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며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기 위한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당의 기초를 쌓고 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잘하여야 당의 전투력과 령도력을 높이고 당대오의 정치사상적통일과 순결성을 고수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승리로 이끌어 나갈수 있다. 그렇기때문에 로동계급의 당은 당건설에서 이 사업을 중요한 문제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에서는 혁명위업의 계승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되었습니다.

우리 당의 사상과 령도를 계승할수 있도록 당수뇌부가 튼튼히 꾸려지고 당의 조직사상적기초가 반석같이 다져졌으며 당의 령도체계가 확고히 수립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건설에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이며 위대한 승리입니다.》(《김일성전집》 제83권 528페이지)

우리 당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역사적교훈과 우리 혁명의 실천적경험을 전면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로동계급의 혁명투쟁력사에서 처음으로 당의 기초축성문제를 혁명위업계승문제해결을 위한 원칙적인 문제로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였다.

당의 기초축성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우리 당의 불멸의 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독창적인 사상리론으로 당의 기초축성위업실현의 지침을 마련한것이다.

당의 기초축성사업은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기 위한 중대한 사업이다. 더우기 이 사업이 일정한 단계에 따라 진행되는 장기적인 사업인것만큼 기초축성의 전력사적단계에 걸쳐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옳바른 지침을 마련하는것은 그 성과를 좌우하는 관건적문제로 제기된다.

우리 당은 혁명위업계승시기의 당의 기초축성문제를 당과 혁명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사활적이며 전략적인 문제로 제기하고 기초축성사업의 사상리론적 및 방법론적지침을 마련하는데 커다란 힘을 넣었다.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하실 원대한 구상을 천명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첫 시기부터 당의 기초축성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그 실현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밝히기 위한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을 전개하여오시였다.

당의 기초축성에 관한 리론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58(1969)년 8월 1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일군들과 하신 담화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다질데 대하여》와

주체69(1980)년 12월 3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평양시당위원회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하신 연설 《당조직들앞에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주체70(1981)년 4월 3일 도당책임비서협의회에서 하신 연설 《도, 시, 군당위원회들앞에 나서는 과업》을 비롯한 로작들과 주체63(1974)년 2월 1일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부부장에게 하신 교시에서 전면적으로 천명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혁명위업계승문제해결에서 본질적의의를 가지는 당의 기초축성사업의 혁명적본질과 그 역사적필연성, 당의 기초축성사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기본요구와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시였다.

당의 기초축성에 관한 이론적지침에서 중요한것은 우선 당의 기초축성의 혁명적본질과 그 역사적필연성을 과학적으로 밝힌것이다.

당의 기초축성의 혁명적본질은 수령의 후계자가 수령의 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기 위하여 전당과 온 사회에 대한 유일적령도를 실현해나갈수 있는 정치적, 령도적지반을 닦는 사업이라는데 있다.

일반적으로 당의 기초는 당을 영원히 수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며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해나갈수 있는 기초를 말한다.

수령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하여나가는 혁명위업계승기에 당의 기초를 쌓는다는것은 당을 영원히 수령의 당으로, 수령의 위업을 대를 이어나갈 후계자의 당으로 만들고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기초를 튼튼히 닦는다는것을 말한다. 이것은 결국 당의 기초가 수령의 후계자가 수령의 위업을 계승완성하기 위하여 전당과 온 사회에 대한 유일적령도를 실현해나갈수 있는 정치적지반을 닦는다는것을 의미한다.

당의 기초는 조직적 및 사상적기초를 중요구성부분으로 하고있다.

당의 조직적기초는 간부대렬을 비롯한 당대렬전반이 수령의 후계자의 령도를 충실하게 받들어나갈수 있게 꾸려진 조직적전일체이며 당의 사상적기초는 전당에 일관하게 관통되어있는 수령의 후계자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이다.

당의 기초축성사업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계승에서 필연적으로 제기되게 된다.

당의 기초축성은 당을 영원히 수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며 수령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기 위한 근본문제이고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역사적교훈으로부터 합법칙적요구로 제기되었다. 당의 기초축성은 1960년대 중엽이후 우리 당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설고있었다.

당의 기초축성의 혁명적본질과 그 역사적필연성이 밝혀짐으로써 혁명위업계승문제해결에서 차지하는 당의 기초축성사업의 지위가 뚜렷이 해명되고 이 사업을 목적의식적으로 벌려나갈수 있게 되었다.

당의 기초축성에 관한 이론적지침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당의 기초축성의 기본요구와 방도를 과학적으로 밝힌것이다.

당의 기초축성의 기본요구와 방도에 관한 문제는 당의 기초축성에 관한 이론을 과학적으로 정립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당의 기초축성의 기본요구와 방도를 옳바로 해명하여야 당의 기초축성사업실현에 작용하는 모든 요인들과 그 호상관계를 과학적으로 밝히고 당의 기초축성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당의 기초축성의 기본요구는 당의 유일적지도체제를 세우는 사업을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세우는 사업과 밀접히 결부하여 통일적으로 밀고나가는것이며 당의 통일단결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더욱 강화하는것이다.

당의 기초축성의 방도에서 중요한것은 간부대렬을 전망성있게 잘 꾸려나가며 당에 대한 충실성을 배양하기 위한 교양사업을 강화하고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한 혁명적규률을 세우며 당원들속에서 당조직관념을 높이고 당생활을 강화하는것이다.

당의 기초축성에 관한 독창적인 리론은 혁명위업계승문제해결의 합법칙적요구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역사적교훈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고있는 정당한 리론이다.

당의 기초축성에 관한 주체의 리론이 전면적으로 정립체계화됨으로써 력사상 처음으로 혁명위업계승시기의 중요한 문제인 당의 기초축성사업을 편향없이 성과적으로 진행해 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옳바른 사상리론적 및 방법론적지침이 마련되게 되었다.

당의 기초축성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우리 당의 불멸의 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전인미답의 길을 헤쳐오면서 당의 기초축성위업실현의 세계적인 모범을 창조한것이다.

우리 당은 우리 혁명의 요구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역사적교훈을 분석하고 당의 기초축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예견성있게 목적의식적으로 추진시켜옴으로써 이 문제를 성공적으로 실현하는 길을 훌륭히 개척하고 그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1960년대 중엽부터 1980년대 전반기에 이르는 근 20년간 여러 단계로 진행되는 당의 기초축성사업을 진행하였다.

당의 기초축성을 위한 조선로동당의 투쟁사에서 주체53(1964)년 6월부터 주체63(1974)년 2월까지의 시기는 당의 기초축성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고 그 귀중한 경험과 고귀한 본보기가 마련된 역사적시기로 특징지어진다.

이 시기 우리 당과 인민앞에는 혁명과 건설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사회주의건설을 전면적으로 다그치는 한편 당사업과 당활동, 혁명과 건설전반에서 당의 유일사상체제와 당의 유일적지도체제를 철저히 세워나감으로써 당의 기초를 대를 이어 만년 초석으로 다져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와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여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하도록 하심으로써 당과 혁명령도의 풍부한 경험과 귀중한 업적을 쌓아나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후부터 우리 당은 력사상 처음으로 혁명위업계승시기 당의 기초축성을 완전무결하게 해결할수 있는 사상리론적대강을 천명하였으며 당사업과 당활동의 주선을 확립하고 당안에 숨어있던 정치적야심가, 음모가들의 반혁명적책동을 제때에 적발분쇄함으로써 당의 유일사상체제와 유일적지도체제 확립의 전환적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인민군대안에 나타난 군벌관료주의를 극복청산하고 인민군대를 당의 령군체제가 선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감으로써 당의 기초축성의 확고한 군사적담보를 마련하였다. 뿐만아니라 문학예술혁명을 통하여 문학예술부문에서 당의 유일사상체제와 유일적지도체제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당의 기초축성의 훌륭한 모범을 창조하였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군대와 문학예술부문에서 당의 유일사상체제와 유일

적지도체제를 세우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진것은 장차 전당적범위에서 당의 기초축성사업을 전면적으로 전개해나가는데서 귀중한 경험으로, 본보기로 되었다.

당의 기초축성을 위한 조선로동당의 투쟁사에서 주체63(1974)년 2월부터 주체69(1980)년 10월까지의 시기는 이미 이룩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당의 기초축성사업이 전면적으로 벌어진 시기로 특징지어진다.

이 시기 우리 당과 인민앞에는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의 승리를 앞당기고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이룩하여야 할 역사적과제가 제기되고있었다. 더우기 우리 혁명대오에서는 세대교체가 일어나고있었으며 이에 따라 혁명위업의 계승문제, 정치적수령의 후계자문제를 옳바로 해결하는것이 당과 혁명발전의 미룰수 없는 요구로 제기되고있었다.

우리 당은 이러한 시대적요구에 맞게 전당과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절절한 념원을 반영하여 위대한 장군님을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한 후계자로 높이 추대하고 당의 기초축성사업을 전면적으로 진행하였다.

우리 당은 간부들을 당에 끝없이 충실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 키우며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당의 통일단결을 확고히 보장하는것을 당의 기초축성의 중심과업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렸다. 그리고 전당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일적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률을 세우며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사상과 로선, 방침들을 무조건 접수하고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전당에 철저히 수립해나가도록 하였다.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교양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당에 정연한 사상교양사업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사상사업의 참신한 형식과 방법을 창조하여 당사상사업을 철두철미 위대한 장군님의 유일적령도밑에 진행해나가도록 하였다. 특히 인민군대안의 당정치사업과 군사사업을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밑에 철저히 진행해나가는 정연한 사업체계와 질서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그리하여 전당, 전국, 전군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일적령도를 빛나게 실현할수 있도록 당의 기초가 만년초석으로 튼튼히 쌓아지게 되었다.

당의 기초를 튼튼히 쌓기 위한 조선로동당의 투쟁에서 1980년대 전반기는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선 우리 당과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의 기초축성의 역사적위업을 빛나게 완성한 시기로 아로새겨져있다.

이 시기 우리 당과 인민앞에는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더욱 힘있게 다그쳐야 할 영예로운 혁명임무가 나서고있었다.

그러나 우리 혁명앞에 조성된 정세는 순탄하지 않았다. 국제무대에서 반사회주의공세가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되고 사회주의나라들이 통일단결을 이룩하지 못하고있었으며 적지 않은 나라들이 민족리기주의길로 나가고있었다.

우리 당과 인민앞에 나선 혁명임무와 조성된 엄중한 정세는 당을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었다.

우리 혁명의 이 절박한 요구는 당과 국가사업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일적령도를 철저히 실현해나갈 때에만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있었으며 그러자면 당의 기초축성사업을 하루빨리 완성하여 장군님의 령도적지위를 확고히 담보하여야 하였다.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이러한 요구로부터 당의 기초축성사업을 완성하는것을 중요한 문제로 전면에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우리 당은 위대한 장군님을 당과 국가의 수위에 높이 추대하고 장군님의 령도적지위를 확립하였으며 간부대렬을 더욱 튼튼히 꾸리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장군님에 대한 충실성을 배양하기 위한 사상교양을 새로운 높은 수준에서 힘있게 밀고나가며 장군님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과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전당, 전국, 전민이 장군님의 유일적령도를 충실하게 받들어나가도록 하는데 힘을 기울이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1980년대 전반기에 위대한 장군님의 유일적령도밑에 당을 더욱 강화하고 주체혁명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정치적지반, 령도적지반이 축성되게 되었다.

이것은 인류자주위업, 국제공산주의운동력사에서 처음으로 당의 기초축성실현의 참다운 본보기가 창조된것이였다.

국제공산주의운동력사는 수령에 의하여 개척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이 대를 이어 계승되어온 력사이다. 이 역사적로정에는 혁명위업계승문제가 옳게 해결되어 혁명이 순조롭게 발전해온 력사가 있는가 하면 혁명위업계승문제를 바로 해결하지 못하여 혁명이 곡절과 실패를 겪은 력사도 있다. 그러나 혁명위업계승문제가 옳게 해결되어 혁명이 순조롭게 발전해온 력사도 혁명위업계승문제해결에 관한 옳바른 리론에 기초한 목적의식적인 투쟁과정에 이루어진 력사가 아니라 환경과 조건에 따르는 우연적인 결과였다.

우리 당이 당의 기초축성문제를 독창적으로 제기하고 훌륭히 해결한것은 국제공산주의운동력사상 처음으로 혁명위업계승문제를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의 합법적직요구에 맞게 과학적으로, 혁명적으로 해결하는 길을 밝혀주고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시대 혁명위업계승문제해결에서 보편적의의를 가지는 귀중한 모범으로 되고있다.

당의 기초축성의 역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세계적모범에서 중요한것은 우선 혁명을 개척한 수령의 대에 혁명위업계승문제를 완전무결하게 해결한것이다.

지난날 국제공산주의운동력사에는 혁명의 길을 개척하고 승리에로 이끌어온 수령들은 있었지만 자기 대에 혁명위업의 계승문제까지 훌륭히 해결해놓은 수령은 없었다.

로동계급의 최초의 수령인 맑스가 서거한 후 엥겔스는 맑스의 위업을 계승하는 충실한 후계자로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맑스가 혁명위업계승문제를 목적의식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맑스에 대한 엥겔스의 두려운 혁명적의리의 발현이였고 혁명위업에 대한 엥겔스의 무한한 충실성의 결과였다. 맑스와 엥겔스는 과학적 사회주의리론을 창시하고 공산주의운동의 시원을 열어놓는것과 같은 거대한 업적을 이룩하여놓았지만 혁명위업계승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단편적인 리론도 내놓지 못하였고 경험은 더구나 창조하지 못하였다.

레닌은 사회주의10월혁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혁명실천을 령도하면서 쓰딸린을 쏘련에서 사회주의위업을 계승해나갈 후계자로 준비시키는데 깊은 주의를 돌렸으며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쓰딸린을 자기의 후계자로 지명하였다. 그러나 레닌은 쓰딸린을 후계자로 내세웠지만 그의 령도를 보장하기 위한 조직사상적기초를 쌓고 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진행할수 없었으며 결과 쓰딸린은 당내에서 령도체계를 세우기 위한 오랜 기간의 간고한 투쟁을 벌리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리하여 쓰딸린은 레닌의 제의에 의하여 당수반

으로 추대된 때로부터 오랜 기간 간고한 투쟁을 벌려서야 령도체제를 수립할수 있었다.

이러한 쓰팔린도 역시 말년에 와서야 자기의 후계자를 지명하는데 머무르고 후계자의 기초축성사업에는 주의를 돌리지 못하였다. 결과 쓰팔린이 서거한 이후 흐루쇼브와 같은 야심가에 의하여 당과 국가의 지도권을 빼앗기는 비극적인 사태가 빚어지게 되었다.

다른 사회주의나라들에서도 수령이 후계자로 지명한 인물이 자기의 정치적지반을 튼튼히 다지지 못한 결과 수령이 서거한 후 음모가, 야심가들로부터 공격을 받으며 진통을 겪다가 결국 후계자의 지위에서 물러나고야마는 비화들을 빚어냈다.

이처럼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는 선대수령의 대에 수령의 후계자의 령도적지반을 축성하기 위한 사업을 목적의식적으로 진행한 경험을 찾아볼수 없다. 이것은 선대수령들이 혁명위업계승문제를 후계자를 지명하고 그에게 직무를 넘겨주면 되는것으로 리해하고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우리 당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장기적성격과 그 수행의 합법칙적요구,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교훈으로부터 수령의 후계자를 옳바로 선정할뿐아니라 후계자의 령도적지반을 튼튼히 다지기 위한 당의 기초축성사업까지 선대수령의 대에 완전무결하게 해결하는 훌륭한 모범을 창조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수령의 후계자를 준비시키는 사업으로부터 후계자를 추대하고 그의 령도를 실현할수 있는 조직사상적기초와 령도체제를 마련하는 사업에 이르기까지 혁명위업계승문제해결에서 나서는 모든 사업이 위대한 수령님의 대에 수령님의 령도밑에 완전무결하게 해결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수령의 대에 수령과 후계자의 령도가 완전히 하나로 결합되어 정치적수령의 령도적지위와 역할을 계승하는 문제가 훌륭히 실현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혁명을 령도하시는 길에서 언제나 함께 계시였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 구상은 곧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 구상으로 되었으며 장군님의 령도이자 수령님의 령도로 되었다.

우리 나라에서 이처럼 수령의 대에 수령과 후계자의 령도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빛나는 현실은 수령의 유일적령도체제와 후계자의 유일적지도체제가 혼연일체를 이룬데서 뚜렷이 발현되었다.

로동계급의 정치사에서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었던 수령과 수령의 후계자의 혼연일체의 관계로 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수령의 대에 후계자의 령도적지반이 그렇듯 완전무결하게 축성될수 있었던것이다.

당의 기초축성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세계적모범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수령의 후계자의 령도적지반을 다지기 위한 사업을 옳바른 과학적리론에 기초하여 목적의식적으로 진행한것이다.

혁명위업계승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정치적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계승하는 후계자문제이며 수령의 후계자문제를 해결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의 하나는 바로 후계자의 정치적, 령도적지반을 튼튼히 다지기 위한 당의 기초축성사업이다. 수령의 후계자를 옳바로 추대하였다 하더라도 후계자의 정치적지반을 튼튼히 쌓지 못하면 후계자의 령도적지위와 역할을 보장할수 없으며 결국은 후계자가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수행할수 없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심각한 교훈을 남기였다.

맑스의 위업이 엥겔스에 의하여 계승되고 레닌의 위업이 쓰딸린에 의하여 계승발전되어온것은 물론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선행한 단계에서 창조된 귀중한 전례였고 경험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례와 경험은 후계자의 정치적지반문제에 대한 올바른 리론이 정립되고 그에 기초하여 목적의식적으로 진행되는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이것은 혁명위업계승문제를 어떤 원리와 원칙, 어떤 방식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리론실천적인 해답을 주지 못하였다.

우리 당은 수령의 후계자의 령도적지반에 대한 리론을 확립하고 목적의식적인 투쟁을 벌려 빛나게 해결함으로써 세계사적의의를 가지는 본보기를 창조하였다.

우리 당과 같이 수령의 후계자의 정치적, 령도적지반을 튼튼히 다지기 위한 사업을 독창적으로 완전무결하게 해결한 당은 사실상 그 어디에도 없다.

우리 당은 이처럼 당의 기초축성의 역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여 혁명위업계승에서 령도의 계승문제, 수령의 후계자문제해결의 세계적본보기를 창조함으로써 전세계 혁명가들과 진보적인민들이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갈 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였다.

오늘 우리 혁명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해나가는 새로운 역사적전환기에 들어섰다.

이 역사적전환기에 있어서 지난 세기 당의 기초축성문제를 가장 리상적으로 해결한 우리 당의 불멸의 혁명업적은 당의 위업, 주체혁명위업계승완성의 고귀한 재부로 되고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기초축성의 역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여온 우리 당의 불멸의 업적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며 혁명의 1세대들과 당의 기초축성시기 일군들처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실마리어 당의 기초축성, 령도체계